

2019 드라마본부 예능본부 경영목표

올해도 험난한 방송 환경이 예상되는 가운데 각 본부가 올해 목표를 공개했다. 우선 드라마본부와 예능본부의 목표를 소개한다. 드라마본부는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된다. 드라마본부는 올해 스튜디오 출범을 통해 콘텐츠 경쟁력을 좌우하는 작가 및 캐스팅, 판권 등 제작 요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SBS 드라마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익을 극대화한다.

김영섭 드라마본부장은 “중간광고의 도입과 OTT 산업 발전에 발맞춘 내외부 플랫폼용 콘텐츠를 기획하여 제작의 혁신을 이루고, 금토드라마 신설 등 편성의 혁신, 넷플릭스, 연합 플랫폼 등 외부 플랫폼 활용을 통한 유통의 혁신을 이루어 글로벌 콘텐츠 제작사로서 기초를 다져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중간광고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특급 캐스팅에 올인하고, SBS 드라마만의 차별화 요소를 만들어낸다.

차별화 요소의 하나로 꼽은 ‘젊은 사극’은 2월 11일(월)부터 월화드라마 <해치>를 통해 방송된다. <해치>는 무수리의 몸에서 태어나 절대왕이 될 수 없었던 연잉군(정일우 분)이 대권을 쟁취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드라마다. <동이>, <이산> 등을 쓴 김이영 작가와 퓨전사극 <일지매>를 연출한 이용석 감독이 의기투합한 작품으로, 김이영 작가의 ‘사극불패’ 신화를 이어갈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동학시대를 살았던 형제들의 이야기를 다룬 <녹두꽃>은 2019년 상반기 또 다른 기대작이다. 조성석, 윤시윤, 한예리가 출연하며 <정도전>을 쓴 정현민 작가와 <육룡이 나르샤>를 연출한 신경수 감독이 만나 화제를 모으고 있다.

수지, 이승기가 <구가의 서>에 이어 두 번째로 만나는 <배가본드>는 장영철, 정경순 부부 작가와 유인식 감독이 네 번째로 만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화제를 모은다. <기황후>를 쓴 장정 부부와 유인식 감독은 <자이언트>, <샐러리맨 초한지>, <돈의 화신>에서 호흡을 맞추며 시청률과 화제성을 다 잡은 바 있다.

그 외에도 <용팔이>의 장혁린 작가와 <신의 선물 - 14일>의 이동훈 감독이 손잡은 파파라치 소재의 드라마 <빅이슈>도 기대작으로 꼽힌다.

드라마본부는 아직 공개할 수 없는 킬러콘텐츠들이 하반기에도 많이 준비돼 있다며 기대와 응원을 당부했다.

예능본부는 예능본부 직영 디지털 채널을 상반기 내에 론칭할 계획이다. 남승용 본부장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광고주들의 요구가 거세다. 아직 유관부서와의 협의가 남아있지만 예능본부는 독자적인 디지털 채널을 론칭해 창의적인 브랜드 콘텐츠로 광고주들의 요구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에 성과가 있었던 공연사업도 올해 더 확대한다. 2018년 <슈퍼콘서트 in 타이베이>, <슈퍼콘서트 in 수원>을 성공적으로 마친 예능본부는 올해 해외 3곳, 국내 2곳에서 슈퍼콘서트를 개최하여 본격적으로 공연사업을 펼치는 원년으로 삼는다. 또 레트로 열풍을 반영한 <불타는 청춘> 콘서트도 상반기에 예정돼 있다.

남승용 본부장은 “수익사업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예능 프로그램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콘텐츠 경쟁력 1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전열을 정비한 타사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예능본부는 본원적 경쟁력을 지켜나가기 위해 2049/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 새로운 킬러 콘텐츠의 기획과 1등 프로그램의 유지, 발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상파 방송 3사, SKT와 연합해 넷플릭스에 맞선다 방송사와 SKT의 역량을 바탕으로 POOQ 성장 모멘텀 확보

방송 3사와 SK텔레콤은 각각 보유 중인 OTT(Over The Top) POOQ과 Oksusu를 통합하기로 하고 지난 1월 3일(금) 한국방송회관에서 관련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지분 100%를 보유 중인 SK브로드밴드의 사업부으로 있는 Oksusu를 분할하고, POOQ을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연합플랫폼과 통합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통합 법인은 지상파 3사와 SKT가 주주가 되어 공동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게 된다.

POOQ은 2012년 서비스를 론칭한 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국내 대표 OTT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으나, 막대한 자본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앞세운 넷플릭스 등 글로벌 서비스의 등장으로 새로운 경쟁 상황에 노출되었다.

이번 연합의 목적은 POOQ이 글로벌 OTT 사업자와 맞서기 위해 필요한 자본력과 가입자 기반, 그리고 차별화된 콘텐츠 확보하여 토종 OTT로서 국내 미디어 생태계 변화를 주도해 나가기 위함이다.

방송사는 전문적인 역량을 활용해 별도로 구성된 콘텐츠 운영위원회를 주도하여 콘텐츠의 수급, 유통, 제작 등 콘텐츠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하게 되며, SKT는 가입자 확대를 위한 마케팅과 외부 자금 유치에 역량을 총 동원하게 된다. MOU는 동남아 중심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대규모 외부 투자를 유치해 해외에 직접 진출하여 우수한 K콘텐츠를 바탕으로 글로벌 OTT로 도약하는 것을 또 다른 목표로 삼은 것이다.



2019 CES 특별 보고

"생존의 위기! 허물어진 경계를 뚫고 이제는 손잡을 때"

- UHD추진팀 이상진 차장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세계가전전시회)를 관람하는 것은 매우 큰 행운이다. 세상을 바꾸는 현장에 있기 때문이다. 가전 전시회로 시작했지만, 가전과 IT를 따로 생각할 수 없는 이 시대에는 첨단 IT기술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아이템은 모두 등장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반세기 동안 꾸준히 혁신 제품을 모아 산업과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키는 데 앞장섰던 CES는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전시 현장이 한편의 실사 영화 그 자체였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AI' 광풍이 불었던 지난 전시에서는 아마존의 음성인식 인공지능인 '알렉사'가 주인공이었다면 이번에는 Google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Hey Google!'이라는 구글 시를 부르는 콜 사인이 벽면 광고로 도배되었고, 많은 전시 부스에 Google 옷을 입은 직원들이 제품과 서 있었다)

1년 만에 AI의 기능은 한층 발전했다. 사용자 명령을 완벽하게 인식할 수 있느냐 하던 단계에서 이제는 시가 먼저 말을 걸며 다가오고, 사용자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그 상황에 좋아할 만한 제안을 했다.

가전뿐만 아니라, 로봇과 자동차, 드론, 심지어 보트까지 모두 인공지능 플랫폼 위에서 서로 연결되어 동작한다.(차에서 집안의 냉장고를 들여다보고, 모자란 것은 자동으로 주문되어 도착 시각에 맞춰 배달되고, 집안의 온도가 맞춰지고, 청소가 이미 끝나있는 영화 같은 삶을 실제로 보여준다)

이 전시의 또 하나의 주요 분야인 자율주행 차량 부문에는 5인승 자율주행 드론 헬리콥터와 아파트 3층만 한 높이의 인공지능이 탑재된 대형 스마트 보트도 등장했다. 이미 모터쇼로 거듭나고 있는 CES가 머지않아서 세계 최대의 '에어쇼'나 '보트쇼'도 아우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자율주행 개발의 초기 과제였던 '어떻게 스스로 주행하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더 이상 고민의 대상이 아니며, 이제는 '자율주행 이동체 안에서 사람이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는 물음에 답을 제시하려 했다.(사용자가 탑승하면 안방처럼 음악을 들으며 휴식하거나, 게임 혹은 운동을 하고, 극장처럼 영상을 보거나 쇼핑물처럼 물건을 사는 모습을 보여줬다. 심지어 탑승자의 감정 상태도 파악하여 그에 맞는 환경을 제공하려 했다)

이렇게 CES는 모든 사물이 서로 연결되어 스스로 생각하도록 만들고, 인간의 삶이 좀 더 나아지는 방향을 제시하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와 이러한 것들을 구현하려면 아무리 큰 기업도 혼자서 제품 하나 생산하는 게 불가능해 보였다. 예전의 경쟁 구도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닫혀있던 애플 생태계가 삼성제품 안으로 들어오고, 국내 이동통신사가 미국 지상파 방송사, 자동차 전장 회사와 손잡았으며, 네이버는 로봇을 만들고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며 자동차 회사와 5G 통신사랑 제휴했다. 심지어 포드는 자기가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플랫폼' 회사라고 말하고, 현대차는 세계 최대 규모의 빅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했다. 그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당장 BM(Business Model/수익모델)을 고려하지 않았고, 그저 자기 기술이나 서비스가, 다른 제품이나 플랫폼에 많이 활용될지 바란다고 했다.

이유는 하나였다. 다양한 데이터 확보였다.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얻는 수많은 데이터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똑똑해진 인공지능이 그 사용자가 하고 싶어 하는 걸 먼저 추천하고, 보고 싶은 걸 보게 하고, 갖고 싶은 것을 사도록 도와주려는 것이다. 반면, 우리는 규제라는 틀 안에서 콘텐츠 제작으로 겨우 수지를



맞추는 상황이라, 다른 데 눈을 돌릴 여유가 없고 노력도 없다. 광고가 주 수익원이지만 시청자 개인이 원하는 광고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가 원하는 광고를 보여줄 수밖에 없어 이 전 시장이 강조하는 산업 변화의 흐름과 결이 같지 않다.

다행히 CES에 오기 전, 우리도 플랫폼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약을 시작했다. 새로운 합작 플랫폼은 그간 방송사끼리 힘을 합쳐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영역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손잡은 파트너가 보유한 최신 기술과 인프라, 그리고 시청소평주행 등 다양한 사용자 데이터와 압도적인 마케팅 능력이 총동원된다면, 우리도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가입자 수를 확보하여 이로 인한 네트워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변화의 힘'을 갖게 될지 희망한다.

곧 탄생할 미디어 플랫폼이 이용자의 신뢰와 호응을 받으며 잘 성장해서, 다양한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자동차 등까지 탑재로 이어져 앞으로 우리가 더 이상 CES의 구경꾼이 아닌 전시 주역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란다. 혁신은 계속된다.

방문신 논설위원 관훈클럽 총무 취임



방문신 논설위원이 중견 언론인들의 연구 친목 단체인 관훈클럽의 66대 총무로 선출돼 1월 11일(금)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취임식을 했다. 방문신 위원은 취임사를 통해 “개방, 공유, 참여의 시스템으로 언론과 세상을 연결하는 길잡이 역할에 주력하겠다”고 말하고, “관훈클럽 2019년이 미래의 후

배들에게 언론의 존재에 관한 의미 있는 역사로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문신 위원은 각 언론사를 대표하는 운영위원, 편집위원, 감사 등 17명의 임원진을 구성해 임기 1년의 활동을 시작했다. 관훈클럽은 1957년 결성된 우리나라 최고 전통의 중견 언론인 단체이다. 방문신 위원의 <2시 뉴스브리핑> 출연 등 사내 업무는 지금까지처럼 계속된다.

채희선 기자 올해의 여기자상 수상



뉴미디어제작부 채희선 기자가 한국여기자협회가 주는 제16회 올해의 여기자상을 받았다. 채희선 기자는 ‘미투’를 시작으로 불법 촬영 범죄 논란 등의 굵직한 이슈가 많았던 지난 한 해, 스브스뉴스 연중기획 ‘디지털 성범죄 박멸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올해의 여기자상은 한 해 동안 가장 두드러진 특종 보도와 기획 취재를 통해 한국 사회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여기자에게 주는 상이다. 시상식은 1월 17일(목)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팀 김비위 폭로 김영성 기자 등 이달의 방송기자상



여자 컬링 ‘팀 김’에 대한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 일가의 갑질과 전횡 논란에 대해 연속보도한 스포츠부 김영성, 이정찬, 박재현 기자와 SBS A&T 최준식, 박춘배 기자가 지난달 말 한국방송학회와 방송기자연합회가 주는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받았다. 취재팀은 성과 위주로 운영되는 한국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심층 취재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와 국민적인 관심을 이끌어냈다. 한편, 같은 보도로 김영성, 이정찬 기자는 한국체육기자연맹(회장 정희돈)이 주관하는 2018년 4분기 체육기자상 보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는 겹경사를 맞았다. 시상식은 1월 29일(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청와대 민정 특감반 의혹’ 김정인 기자 등 이달의 기자상



보도국 정치부 김정인, 김정윤, 이호건, 권지윤, 민경호 기자가 1월 22일(화)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가 주관하는 제340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김정인 기자 등은 ‘輿 인사 비위 찾아냈다 쫓겨나...청와대 민정 특감반 의혹’을 통해 여권 중진 금품 수수 의혹을 둘러싼 수상

한 박주기 의혹을 단독 보도하여 청와대 특감반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국회 운영위 소집까지 이끌어 냈다.



“뉴스의 혁신은 기자를 보도의 핵심 자산으로 만들어내는 것”

- 보도본부 뉴스혁신부 이창태 이사대우

『세프가 한 번의 터치로 플레이팅의 품격을 올려놓듯, 무심히 던지는 그의 조언 한 마디에 8 뉴스, 정상회담특보, SDF의 격조가 급상승했습니다. 2018년 올 한 해, 보도본부가 벌인 일 가운데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뒀ся기에 이 상에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2018년 보도본부 송년회에서 이창태 이사가 받은 공로상의 문구다. 회사에서 주는 공식적인 상이 아니라 보도본부 구성원들이 주는 상이라 더 뜻깊다는 그를 만나봤다.

PD가 보도본부에서 상을 받았다.

30년 넘게 PD 생활하며 이런저런 상을 받아봤는데, 그 어떤 상보다 기쁘고 의미가 있다. 뉴스에 문외한인 사람을 받아들여 주고, 좋게 봐준 보도본부 선배들이 정말 고맙다. 상의 글귀는 제가 한 일이라기보다 제가 해야 할 일, 제가 가져야 할 자제인 것 같다. 문구에 적힌 사람처럼 되기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

뉴스혁신부에 온 지 1년이 되었다. 되돌아보면?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보도본부가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는 시기에, 유능하고 열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속에 내가 있었을 뿐이다. 처음 올 때만 해도 ‘PD 생활을 하며 쌓은 경험적 자산을 보도본부에 이식해주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는 오만(?)한 생각을 가졌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본래부터 보도본부 구성원들에게는 좋은 씨앗이 내재해 있었으며, 그것을 싹 튀우고 성장시킬 역량과 열정도 충분했다. 저는

다만 옆에서 응원하고 결과에 박수쳤을 뿐이다.

예능본부장까지 했는데 현재 뉴스혁신부의 유일한 팀원이다.

직함은 불리는 이름일 뿐, 나는 언제나 PD였고 PD이다. 인연에 따라 때와 장소에 맞게 일하는 거다. 교양 PD로 10년, 예능 PD로 20년을 보냈다. 시트콤도 2편 해봤으니 드라마 경험도 있다고 할 수 있고, 편성에도 2년 있었으니 그야말로 제작, 편성, 드라마 그리고 지금의 보도까지 모든 부문을 경험하는 행운을 누렸다.

PD는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게 업인 사람인데, 2004년 <웃찾사> 연출을 끝으로 현업에서 멀어진 것이 늘 아쉬웠다. 다시 일선에서 일하게 돼 감사할 따름이다.

보도본부에 PD 출신이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보는가?

뉴스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 ‘무식하게 막’ 얘기한다. 시청자 눈높이와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한 가지를 더 든다면 뉴스도 프로그램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기자의 본령이 사실에 대한 취재와 진실에 대한 접근으로 What과 Why를 고민한다면, PD는 기자보다 How에 대해 고민한다. 즉, 어떻게 해야 시청자를 쉽게 이해시키고 몰입시킬 것인가를 고민한다는 것이다.

PD 입장에서 보는 뉴스혁신은?

제작 프로그램은 PD 1인의 결심에 따라 일주일 만에도 확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보도는 제작과 달리 200명의 기자가 취재해



온 것을 선별하고 재구성해, 그것도 매일 방송하며 바뀌어나야 한다. 근본적으로 혁신의 요소도, 방식도 제작과는 180도 다르다. 뉴스는 기자가 누구이고 어떤 캐릭터를 갖느냐에 따라 달리 구성되고 전달된다. 따라서 뉴스 혁신은 ‘전문성 있는 기자, 특성 있는 기자를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하게 육성하고 스타화(대중의 인지도와 신뢰도)시켜 SBS의 핵심 자산으로 만드는 나’의 문제라 본다.

끝으로 한마디

다매체, 뉴미디어 시대에 지상파의 HUT과 영향력, 수익성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 뉴미디어 시장이 주도할 미래에 살아남을, 지금 같은 ‘뉴스’에 국한되지 않는 SBS ‘보도 콘텐츠’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사람에 대해 보도본부 구성원들이 고민하고 있다. 나도 함께 고민하며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



“간헐적 단식은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 <SBS스페셜> ‘2019 끼니반란’ 연출 이윤민 부국장(교양2CP소속)

1월 13일, 20일 방송된 <SBS스페셜> ‘2019 끼니반란’ 1, 2부가 2049시청률 4.2%, 4.1%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시청자 수로 따지면 1부 기준 1,034,131명이 시청하여 최근 5년간 방송된 <SBS스페셜> 중에 가장 많은 시청자를 TV 앞으로 끌어 모았다. 2013년 ‘끼니반란’ 2부작에 이어 또 다시 ‘간헐적 단식 2.0’을 들고 온 이윤민 PD를 만났다.

1년 전에는 <SBS스페셜> ‘칼로리란’으로 한 해 동안 방송된 <SBS 스페셜> 중 가장 높은 2049시청률을 기록했다.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건지?

2013년에도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다. 많은 시청자가 다이어트의 한 방법으로 간헐적 단식을 보고 있는데, 몸이 건강해지는 한 가지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번에 다시 이 주제를 다룬 것은 2013년 이후 단식과 인체의 변화, 건강 지표 향상에 관한 과학적 데이터베이스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등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기에 소개해드리고 싶었다. 사람들이 특히 연초에 건강에 관한 계획을 많이 세우다보니 시청률도 높게 나온 것 같다.

2013년부터 간헐적 단식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현재 50대 중반인데 건강은 어떤가?

건강검진을 해보면 안 좋게 나오는 부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간헐적 단식이 모든 병을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예방해주는 것도 아니다. 무조건 권장하고 싶지도 않다. PD로서 ‘Self Experiment’ 하고 있는데 중년 이후의 체중 관리에는 분명 도움이 된다.

어떻게 실천하고 있나?

보통 아침을 굶는데, 그 전날 근력운동을 했다든지 하면 먹기도 한다. 시간을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술도 마시는 등 유연하게 한다. 아침, 점심, 저녁까지 세 끼를 먹을 때도 있고, 설 때는 게를 러서 하루 종일 굶을 때도 있다. 36시간 단식이 되는 거다. 18시간, 24시간, 36시간 단식을 왔다 갔다 한다.

사우들에게 방법을 알려준다면?

간헐적 단식은 라이프스타일이다. 1~2달을 생각한다면 안하는 게 좋다.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 먼저 하루에 얼마나 오래 먹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보통 15시간 정도 나오는데 12시간으로 줄여야 한다. 그게 황금률이다. 살을 빼겠다고 건강을 생각한다면 조금씩 더 줄여서 8시간까지 줄이는 것이 좋다. 힘들면 다시 12시간까지 늘리면 된다. 일어나서 한 시간 후부터 잠자기 세 시간 전까지 8시간~12시간을 편하게 잡아서 식사하고 나머지 12~16시간을 단식하면 된다.

기억에 남는 작품은?

너무 오랫동안 많은 작품을 만들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것이 알고 싶다> ‘이태원 살인 사건’은 잊을 수 없고, 그 외 <SBS스페셜> ‘안녕 봉순아’, 오기현 부국장과 같이 만든 ‘84년생 김정은과 장마당 세대’가 비교적 최근에 상을 받아서 그런지 기억에 남아 있다.



다음 방송은 어떤 내용이 될까?

편집하느라 날밤을 세워서 몸이 엉망이다. 우선 좀 쉬면서 뒤죽박죽된 24시간 생체리듬을 회복한 후 생각해 보겠다. 간헐적 방송을 하고픈 소망이 있다^^

2018 하반기 시청자위원이 뽑은 좋은 프로그램상



1월 23일(수) 목동 SBS방송센터 20층 대회의실에서 2018 하반기 시청자위원이 뽑은 좋은 프로그램상 시상식이 열렸다.

TV 보도교양 부문 수상작 <그것이 알고 싶다>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웹하드 불법 동영상의 진실’, ‘양회장은 어떻게 괴물이 됐다 - 웹하드 제국과 검은돈의 비밀’(연출: 김병길, 박지은)은 수면 아래 가려져 있던 디지털 성범죄 영상의 유통구조의 핵심인 카르텔 구조와 업계 1위 업체의 실소유주인 양진호 회장의 불법 행위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다. TV 드라마 부문 수상작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연출: 조수원)는 폭력적이거나 과장됨 없이 따뜻하고 잔잔한 이야기로도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TV 예능 부문 수상작 <백종원의 골목식당>(연출: 이관원, 정우진)은 포방터 시장 식당들이 맛집으로 변하는 과정과 흥탁집 아들의 환골탈태를 보여주었다. 라디오 부문 수상작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연출: 최다은)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여유와 사색을 제공하는 심포 같은 프로그램임을 인정받았다.

남북 방송 교류 공로 오기현 PD 방통위원장 표창



남북교류협력단 오기현 선임PD가 남북 방송통신 교류 업무에 기여한 공로로 12월 31일(월) 방송통신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한국PD연합회 통일특위위원장이기도 한 오기현 선임PD는 PD로는 1998년 최초로 방북한 이래 20년간 28차례 방북했다. 남북한 당국의 최초 공식승인을 받은 <조경철 박사의 52년 만의 귀향>(1999년)을 제작했고, <평양 뉴스 2000>(2000년), <조용필 평양 공연>(2005년) 등을 기획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민간의료단체인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이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의료협력시스템과 북한의 의료시설을 취재하여 <8 뉴스> 등에 방송했다.

인프라관리팀 권태용 선임매니저 안식년



인프라관리팀 권태용 선임매니저가 2월 안식년에 들어간다. 권태용 선임매니저는 28년간 ENG카메라와 VCR 등 고품질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송출에 핵심 역할을 하는 장비들의 유지 보수를 성실히 수행해왔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남아공월드컵과 런던 하계올림픽 등 다수의 스포츠 빅 이벤트 방송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 운용하는 데 기여했다. 퇴직에 앞서 모터보트와 요트 조종 면허를 취득하는 등 제2의 인생을 위한 도전도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